

광양시, '현장에 답이 있다'... 9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도선 천년동백정원 조성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시민 건의 현장 3곳 점검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9월 11일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해 주요 사업장과 시민 건의 현장 3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시장은 이날 ▲도선 천년동백정원 조성사업장 ▲광양읍 경로당 방문 건의 현장 ▲백학동 기억센터 운영상황 점검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도선 천년동백정원 조성사업 현장(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일원)은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찾은 곳으로, 도선국사의 풍수지리 사상을 반영한 자연 친화적 주제정원이 조성 중이다.

정 시장은 마운당 계획과 정원 공간 구성을 점검한 뒤, "정원의 전체 조경은 풍수 지리 형상이 한눈에 인식될 수 있도록 조성해 상징성과 미관을 강화할 것"과 "포드 존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조형물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우산공원은 지난 광양읍 경로당 방문 중 신기마을 뒤편 산책로에 옥외용 벤치 설치, 쾌적한 산책로 조성을 위한 풀베기, 우산각 주변 화상설치 등의 건의가 나온 곳이다.

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용 벤치 설치와 풀베기를 건의 직후 완료했다. 정 시장은 관계부서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과 조치 결과를 들은 뒤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연중 공원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정 시장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분소 '백학동 기억센터'를 찾아 상담실,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등을 둘러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11월 개소 이후 치매 환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치매쉼터로 운영되며,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상담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송영 서비스 차량을 운행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정 시장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고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



라"며 "우수한 시설인 만큼 마을 주민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여겠다"면서 "시민 건의 현장은 이른 시일 내 방문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해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광양 감동데이', '시정공감토크', '경로당 방문'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채널을 통해 건의된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성군, 구제역 피해 '제로(0)화' 팔 걸었다

하반기 예방백신 일제 접종... 소 489농가, 염소 92농가 대상

장성군이 이달 28일까지 지역 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대상은 생후 8주령이 지난 소 1만 7190두(489농가), 염소 3066두(92농가)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감염되면 입술, 혀, 잇몸, 코, 시간부 등에 물집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어린 동물은 폐사할 수도 있다.

구제역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접종해야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3월·9월에 일제 접종, 6월·12월에 수시 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발생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 100두,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에게도 공수의를 통해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가축도 보호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구제역 피해 '제로(0)화'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뜰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청년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이 지난 8일 수료식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 과정은 8월 18일부터 총 6회 차로 운영됐으며, 수강생 10명 중 9명이 수료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교육은 마을을 이해하고 청년이 마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담양군, 청년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과정 마무리

마을 이해·자원조사·돌봄까지 6회 차 교육 과정 운영

청년들은 ▲마을공동체의 이해 ▲청년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비전 설계 ▲마을자원조사 및 기록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돌봄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마을

과 자신을 잇는 연결고리를 찾아갔다. 아울러 수료식에서는 선배 마을활동가가 직접 마을 현장에서 겪은 경험담과 활동의 보람, 때로는 어려움까지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도 함께했다.

한 수료생은 "교육을 통해 마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 앞으로 작은 역할부터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산에 담양군뜰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암군, 전 주민 에너지 기본소득 지급 정책 설명한다

16~25일 11개 읍·면서 'RE100 영암, 햇빛연금 실현 주민공청회'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체 영암군민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순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16~25일 11개 읍·면을 찾아가는 'RE100 영암, 햇빛연금 실현-영암군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

영암군은 올해 7월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을 발표하고, △신재생 에너지 허브-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에너지저장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에너지 대전환 청사진을 밝혔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발전 사업 등으로 얻는 수익금을 영암군민에게 나누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책 발표와 함께 '에너지 기본소득 로드맵 연구 용역'에 들어간 영암군은, 삼호읍·미암면 간척지에 1,190MW, 영암호 일대에 427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이번 공청회에서 주민에게 설명한다.

영암군의 최종 목표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수익으로 전체 영암군민에게 해마다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발전사업 참여 주민에게는 배당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가정 '에너지 전환 기금'도 마련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직업 전환 교육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영암군은 주민공청회에서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 방향·방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 △개발 이익 공유 방안 등을 안내해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특히, 간척 농지를 태양광 발전 집적화 단지로 개발할 경우, 영농 활동 중단에 따른 임차농 등 농민 피해 최소화 및 상생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주민공청회의 일시는 ▲16일 오전10시 덕진면, 오후3시 금정면 ▲18일 오전10시 영암읍 ▲19일 오전10시 신북면 ▲22일 오전10시 학산면, 오후2시 서호면 ▲23일 오후3시 군서면 ▲24일 오전10시 미암면, 오후3시 삼호읍 ▲25일 오전10시 도포면, 오후2시 시종면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9월 9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태추단감 작목반 등 54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4차)'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감연구회 서재만 임원이 강사로 참여해, '월별 과수원 관리 요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 내용은 △정지·전정 △동계 약제 살포 및 만상 대책 △꽃봉오리 숙기 △해충 방제 △수확·저장

구례군, 태추단감 신기술 현장컨설팅 성료

전국 최대 주산단지 기반,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재배기술로 구성되어 참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태추단감은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대표 품종으로, 일반 단감보다 크기가 크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기 좋

은 특성을 갖고 있다.

구례군은 현재 전국 최대의 태추단감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2023년 30.9ha였던 재배 면적은 2025년 40.9ha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재배 단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국내 최대 태추단감 주산단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은 전국 태추단감 주산단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배 면적을 지속 확대하고, 명품 단감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2일 쯤쯤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쯤쯤가무시증은 쯤쯤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매년 약 6천 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한다.

특히 추수철과 단풍철에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방이 무엇보다

화순군,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쯤쯤가무시증 환자 집중 발생 시기, 예방수칙 실천 강조

중요하다. 감염 시 발열, 근육통, 발진과 함께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는 특징 증상이 나타난다.

화순군은 군민들이 야외 활동 시 손쉽게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내 공

원, 등산로 입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진드기 기피제함 20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털진드기 유충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라며,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풀밭에 눕지 않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활동 후 발열이나 가피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